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총력'

익산시, 충청·호남권 포괄 교통 편리 다양한 치유 지원 연계... 익산 강점 포력

익산시가 올 상반기 선정될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1일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를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전라북도 민·관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의회 의원, 도 교육청, 익산교육지원청 사회복지·청소년기관단체, 원광대학교, 시민단체 등 2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익산 유치 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

부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립 거점형 치유·재활시설이다.

최근 수도권과 경상권에 이어 호남권 설치가 가시화되며 시는 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유 프로그램 연계 청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발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청소년과 시민들도 SNS 챌린지 운동을 펼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전라북도의회와 민·관 추진위원회에서는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

다.

민·관 추진위원회에서는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의 편리성, 다양한 치유 자원의 연계성 등을 고려 익산시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택립 익산시장 권한대행은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가 유치된다면 호남권뿐 아니라 세종·충청권까지 포괄할 수 있다"며 "우리가 꼭 유치에 성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무너봉 일원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 12점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민 안전·위급상황 대비”

군산시, 무너봉 국가지점번호관 설치 확대

군산시는 시민안전을 위해 무너봉 일원에 국가지점번호 안내표지 12점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소방·경찰·산림청 등 기관별로 각각 사용하던 위치표시 체계를 하나로 통합 산·하천 등 건물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토의 통일된 위치안내 표시 방법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암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관 58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월영산·대각산 장군봉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등산로에 총 188점을 설치했다. 올해는 오는 5월까지 육도면 무너봉 일원에 국가지

점번호관 12점을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국가지점번호관이 설치되면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등산로 추락사고 등 민약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주요 등산로 위주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시민의 안전과 위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며 "민약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등산로 주요 지점에 설치되어있는 국가지점번호관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100% 손실보전'

익산시, 노지감자·생강·건고추 3개 품목 5월 31일까지 읍면동 접수

익산시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전액을 보전해준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10% 추가 지원해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 100% 보전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익산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 조례를 개정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지

역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지역농협(원협), 통합마케팅조직(익산농협마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품목은 7개 품목(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 가물무, 가물배추)으로 현재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 3개 품목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품목당 1,000㎡(300평)에서 1만㎡(3,000평)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며,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8~9월경에는 대파, 가물무, 가물배추 3개 품목에 대해 신청 받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출하된 농산물의(노지감자·생강·대파, 총 42.2톤) 가격하락분 100%를 지난 2월에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보합적 성격으로 차액 지원폭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가가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농업인들이 최저가격 보장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왕궁면, 환경권 보장 가축사육 제한 확대... 6월 시행

익산 왕궁 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확대되면서 새만금 수질과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축사매입 지역 안에서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에 '왕궁 정작마을'과 '운수리 학호마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현업·휴폐업 축사 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주민들에

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축사매입 사업은 현업축사 1천577억(국비)과 휴·폐업축사 380억(도비, 시비)의 예산이 투입되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학호마을을 축사매입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문제까지 해결돼 왕궁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왕궁현업축사 매입이 마무리되면 새만금 수질개선과 함께

고속국도변 광역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악취로 고통받았던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전국 행사 준비 도로 일제 정비 추진

군산시는 올해 개최되는 전국 단위 행사 준비를 위해 주요 관문로 및 행사장 일원 도로 및 인도 주변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드 코로나를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략에 따라 잠정연기되었던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는 8월 개최된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 기능 유지와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분별 도로정비를 추진한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28억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올해 7월 안으로 ▲주요나들목(육산·당북·군산대·공향교차로), ▲군산신(구암삼~연안사), ▲새만금북로(군산대~비응향) 재포장 및 포트홀 보수 ▲행사장 일원 제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올해 4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 주택 85호를 보수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사업량 또한 지난해 35호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사업은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위탁업체를 통해 노후주택을 보수해준다.

그동안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지 57여억원을 들여 1,800여 가구의 노후 주택을 보수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추진액은 범외방비시설 설치와 함께 고효율 창호 및 보일러 고효율 조명 등 에너지 절약 시설(그린리모델링)을 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를 조기 폐차 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원한다.

농업기술센터는 트랙터, 콤팩트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 사용 농기계의 조기 폐차 시 연도와 규격별로 차등 보상금을 지급해 미세먼지 발생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지원금액은 노후 농기계 폐차 시 제조연도와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콤팩트는 100만원부터 1,31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대상 농기계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와 콤팩트로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로 해당 농기계가 용자상환액이 남아있지 않은 6개월 이상



보유한 농기계여야 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까지 제조연도가 빠른 농기계를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 있는 지구온난화에 맞서 탄소배출 감소와 대기환경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